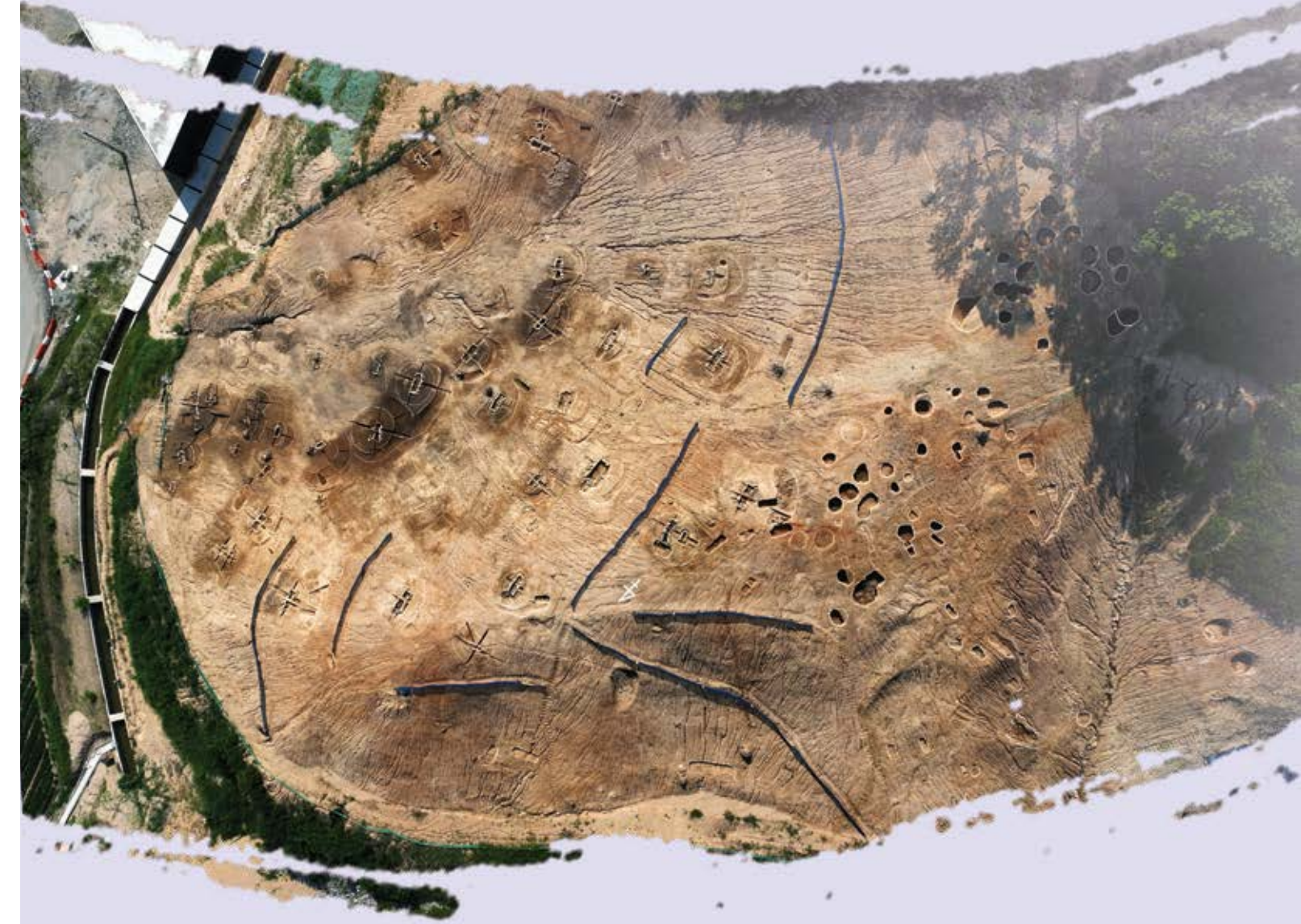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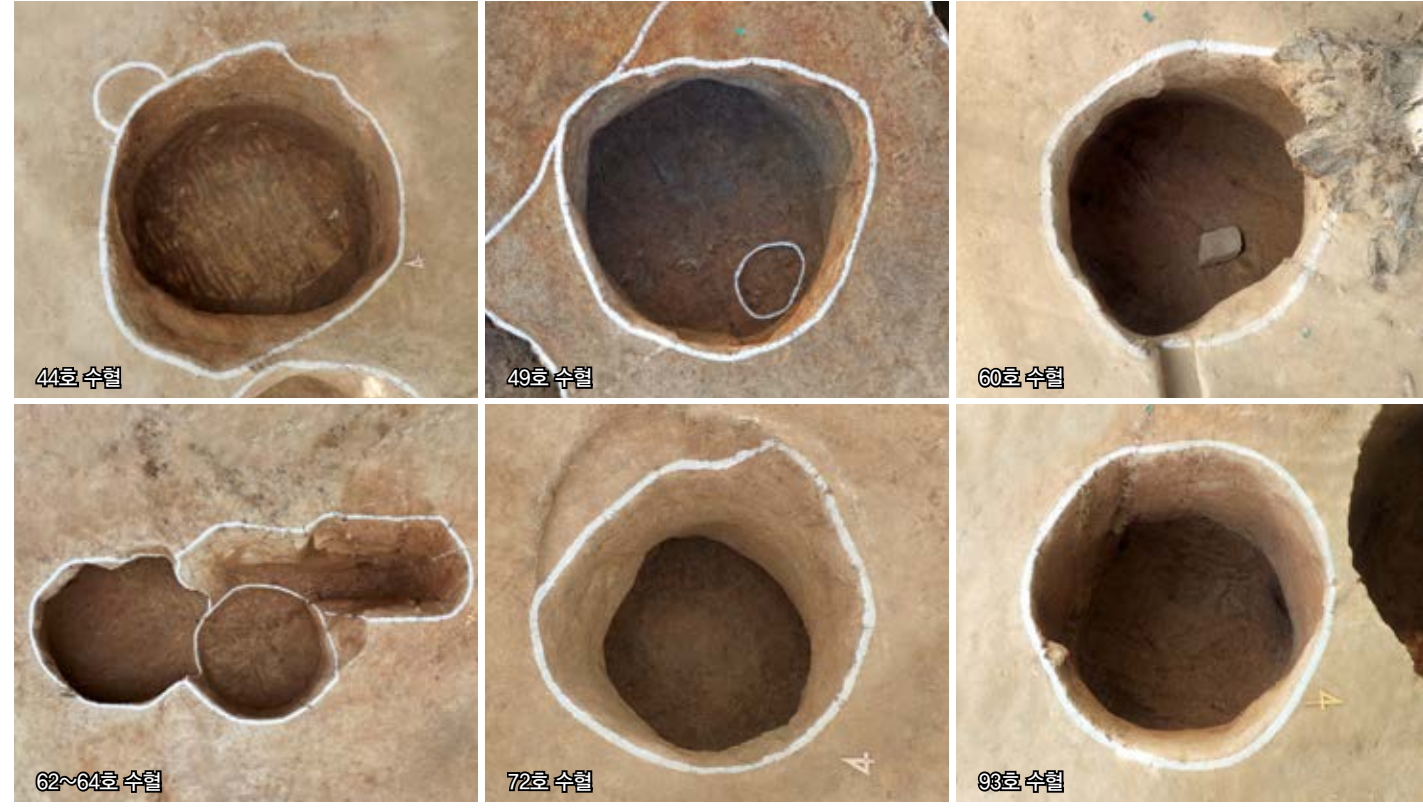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6·7·8공구) 문화재 발굴조사



유적명 추동 유물산포지
 조사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산80-1번지 일원
 조사기간 2023년 2월 27일 ~ 2024년 10월
 조사면적 정밀발굴조사 29,000㎡
 공개일시 2024년 10월 17일 오후 2~4시

2. 수혈

백제시대 수혈유구는 총 109기가 조사되었다. 구릉 사면 상단부인 해발 75~85m에 군집을 이루며 밀집 분포한다. 대부분의 수혈유구는 규모가 큰 원형의 저장용 수혈이다. 수혈은 기반토를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 또는 원통형으로 조사되었으나 함몰 또는 유구의 폐기를 감안하면 대부분 플라스크형 수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대형의 경우 직경 250~450cm, 깊이 150~350cm 정도이며, 소형의 경우 직경 130~180cm, 깊이 50~100cm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퇴적토 내에서 각배편, 삼죽기, 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현황

본 발굴조사 공개 내용은 한국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제 6·7·8공구) 구간에 위치한 곳으로, 발굴허가 2019-0603호를 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19개 지점 중 추동 유물산포지 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추동 유물산포지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산 80-1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시굴조사 13,709㎡, 표본조사 20,012㎡이며, 이 중 29,000㎡가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조사지역 인근에서 조사된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280m 떨어진 원당 유물산포지B에서 백제 사비기 석실을 비롯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군, 북쪽으로 100m 떨어진 원당 유물산포지C에서 백제~통일신라시대 취락 유적 및 백제 분구묘가 본 발굴조사 허가건에서 조사된 바 있다. 더불어, 조사지역 남쪽의 간대봉(110.5m)에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테뫼식 산성이 자리한다.

추동 유물산포지 정밀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백제시대 분묘유구와 생활유구, 조선시대 분묘유구와 생산유구 등 총 374기이다.(아래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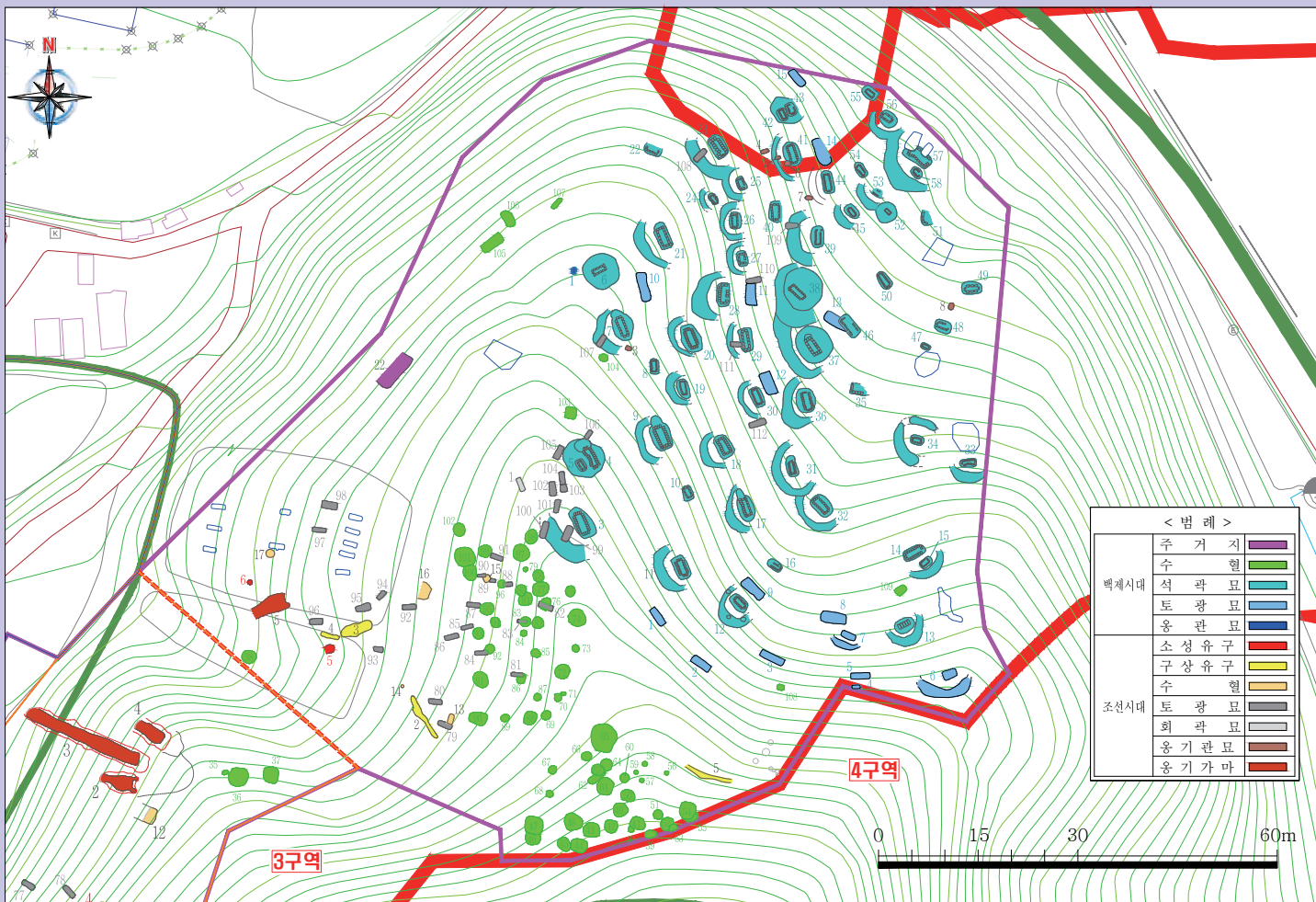
정밀발굴조사 구역은 지형에 따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1~3구역은 2023년도에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금번 현장 공개 대상은 4구역으로 백제시대 석곽묘와 토광묘, 수혈유구가 주로 위치하고 있다.



추동 유물산포지 정밀발굴조사 전체 전경

추동 유물산포지 유구 현황표(전체)

| 유구 종류 | 백제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주거지 | 수혈 | 분구 | 석곽묘 | 옹관묘 | 토광묘 | 건물지 | 주거지 | 소성유구 | 구상유구 | 수혈 | 석곽묘 | 회관묘 | 옹기관묘 | 석관묘 | 옹기가마 | | | |
| 기수 | 22 | 109 | 3 | 58 | 1 | 15 | 2 | 1 | 5 | 6 | 5 | 17 | 1 | 112 | 1 | 8 | 1 | 1 | 5 |
| 계 | 210 | | | | | | | | | | 164 | | | | | | | | |



추동 유물산포지 정밀발굴조사 4구역 유구 현황도

1. 석곽묘

백제시대 석곽묘는 총 58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과 3구역에서 각각 1기가 조사되었으며, 4구역 동쪽 사면에 56기가 밀집 분포한다. 규모는 수혈식 석곽묘는 묘광 길이 173~384cm, 너비 110~235cm이며, 석곽 길이 85~304cm, 너비 37~116cm, 높이 10~80cm이다. 횡구식 석곽묘는 묘광 길이 319~591cm, 너비 129~506cm이며, 석곽 길이 149~293cm, 너비 43~122cm, 높이 42~109cm이다.

축조방법은 석곽묘가 자리하는 경사면 상단으로 1~2m 정도부터 기반토를 'L'자형으로 굴토하여 정지하고 벽석과 함께 성토하여 쌓거나, 최하단석과 1~2단은 기반토를 굴토하여 축조하고 이후로는 벽석과 함께 성토하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수혈식은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높혀 쌓거나 판석을 가로방향으로 세워 쌓고 2단 이상은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높혀 쌓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횡구식은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높혀 쌓고 입구부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교적 작은 할석을 세로방향으로 높혀 쌓고 그 위로는 판석을 가로방향으로 세워 쌓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모서리는 대부분 덧댐방식으로 단벽과 장벽이 직각을 이룬다.

석곽묘의 바닥은 대부분 5~10cm 크기의 강자갈을 전면에 깔아 바닥석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기반토를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20~30cm 크기의 판석형 강돌, 30~50cm 정도는 편마암계 판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석곽묘는 매장주체부와 50~200cm 정도 떨어져 경사면 상단에 눈썹모양으로 석곽묘를 감싸는 형태의 주구가 잔존하고 있다. 또한 횡구식 석곽묘의 경사면 상단으로 수혈식 석곽묘가 매장된 축조 사례가 확인되었으며(4·5호, 14·15호, 57·58호), 42호와 43호 석곽묘는 경사방향으로 나란히 중복되어 조성한 양상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병 단경호·광구호·소호·개·고배·삼죽기·완·대부완·방추차 등의 토도류와 철도·철검·철촉·관못 등의 철기류, 금제이식·구슬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추동 유물산포지 정밀발굴조사 4구역 동사면 백제시대 석곽묘 밀집구역 전경

4호 석곽묘



전체 전경



벽석 세부

횡구부 세부

유물 출토 상태

17호 석곽묘



전체 전경



벽석 세부

횡구부 세부

유물 출토 상태

21호 석곽묘



전체 전경



벽석 세부

횡구부 세부

유물 출토 상태